

쌀밥 덜먹고 떡·쌀음료 많이 먹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55.8kg 역대 최저...치킨 등 대체 소비 늘어
식료품·음료 제조업체 쌀 소비량 87만3363t...1년새 6.9% 증가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1984년 이후 40년간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가구부분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사업체부분 쌀 소비량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및 식사 대체 음식 증가, 서구식 식습관 확산 등으로 집밥 수요는 줄고, 쌀이 들어가는 음료 등의 쌀 가공식품 수요는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통계청의 '2024년 양곡소비량조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부분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4.6kg으로 전년 대비 0.2kg(0.3%) 감소했다. 전체 양곡 중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1년새 0.6kg(1.1%) 감소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984년 130.1kg으로 전년(129.5kg) 대비 0.6kg 증가한 뒤, 지난해까지 4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 역시 지난해 기준 152.9g으로 전년(154.6g)보다 1.7g 줄어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같은 가구부분 쌀 소비량 조사 결과는 집에서 밥을 짓는 소비량과 배달음식 등 외식을 통한 소비

량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통상적으로 밥 한공기가 100g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명이 하루에 1.5공기 분량의 밥만 먹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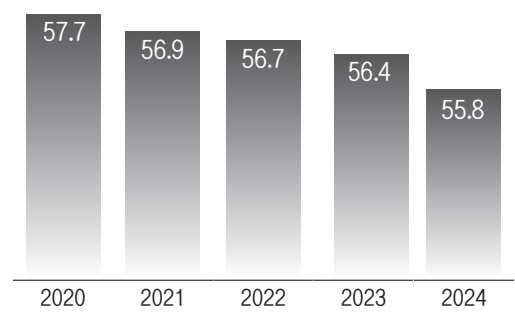
이같은 쌀 소비량 하락세는 과거와 다른 식습관 변화 및 국내 가구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해 발표한 '농업전망 2025'을 통해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의 확산 및 하루 3끼니를 모두 쌀밥을 먹지 않는 등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지난 2014-2023년 10년 동안 쌀 소비량이 연평균 1.6%씩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실제 쌀밥을 대체할 수 있는 치킨, 삼겹살 등의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3대 축산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지난 2012년 40.6kg으로 전년대와 같은 수치를 기록한 뒤 11년 연속 증가해 2023년 기준 60.5kg으로 연간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 감소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가구부분 쌀 소비량은 1년전보다 감소한 가운데, 기타양곡 소비량은 8.6kg로 0.4kg(4.9%) 증가했다. 이는 건강을 위해 쌀로만 지은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단위: kg)



밥보다 보리, 잡곡, 두류 등을 섞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타양곡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부분에서 쌀 소비량이 줄어든 반면, 사업체들의 쌀 소비량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사업체 부문에서 식료품·음료를 취급하는 제조업 부문 업체들의 쌀 소비량은 87만3363t으로 전년(81만7122t)에 견줘 5만6242t(6.9%)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식료품업체의 쌀 소비량은 58만4612t으로 1년새 4.8% 증가했고, 음료 제조업체는 28만8751t으로 11.5% 늘었다.

사업체들의 업종별 쌀 소비 비중은 주정(26.2%)이 가장 많았고, 맥류(22.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8.6%), 기타 곡물 가공품(10.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디지털 계약 창구 본격 운영

계약 절차 간소화 등 개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달부터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농지은행 디지털 계약 창구 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사진)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이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 절차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농지 계약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여러번 방문하거나,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앞으로는 농지 계약을 원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서류를 제출한 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전자 서명 방식으로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기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정보 가압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



안에 대한 신뢰도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도입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와 연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직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을 통해 간소화된 계약 절차 및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령 농업인의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겨울의 황금빛 선물 귀하신 몸 유자

영양 가득 찬 건강 과일...향과 맛으로 빛어낸 천연 보약

'유자는 열어도 선비 손에서 놓고, 탕자는 잘생겼어도 거지 손에서 구른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 감기 예방을 위해 청으로 마실 정도로 흔하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유자는 아무나 맛볼 수 없는 귀한 과일이였다.

유자는 깊은 향만큼 그 역사도 오래됐다. 약 1000년 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래한 것으로 알려진 유자는 조선 시대에 약재나 향료로 주로 사용됐다. 의학서 '동의보감'에는 유자가 소화를 돕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인해 전통 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유자의 문화적 의미도 흥미롭다. 유자는 풍요와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옛말에도 '동지에 유자차를 마시고 유자탕에서 목욕하면 일 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다.

또 유자는 행운의 과실이었다. 유자의 유(柚) 자는 하늘이 듣는다는 뜻인 천우신조의 우(佑) 자와 발음이 비슷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여겨졌다. 새해를 맞아 유자를 먹는 것은 금욕(金玉滿堂)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집안이 금과 옥으로 가득 찬다는 의미다. 역시 유자가 있을 유(有)와 소리가 같아서 좋은 운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유자는 영양학적으로 볼 때 비타민 C 함량이 매우 높은 감귤류 과일이다. 100g당 약 1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어 겨울철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건강을 촉진한다.

유자는 특유의 신맛과 향 때문에 생으로 먹기 보다는 껍질과 과즙이 요리나 가공식품에 자주 사용된다. 껍질은 유자청이나 잼, 차, 소스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과즙은 드레싱, 디저트, 케이크의 재료로 인기가 많다.

유자는 한때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과일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 요리를 넘어 현대적인 레스토랑 메뉴와 건강 보조 식품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자 드레싱 샐러드, 유자 마카롱, 유자 케이크 등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자의 향과 성분을 활용한 스킨케어 제품 역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흥에서 생산된 유자는 이미 전 세계에서 프리미엄 유자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차와 음료, 전통주, 하이볼 형태로 젊은 세대에 인기몰이하고 있다. 유자 막걸리 '달빛유자'를 생산하는 서울장주수와 협약을 통해 판매를 늘리고,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수출길을 개척해 고흥유자가 프리미엄 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흥 유자와 중국 해삼 추출물을 활용한 한-중 합작 음료 '하이유'를 개발해 중국에 수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유자가 가능한 식품이나 약품의 원료로서도 잠재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유자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대인의 건강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자연적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유자는 단순히 겨울철 즐기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작목이다. 풍부한 영양소와 다양한 건강 기능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적 의미까지 깃들여 있어 때문이다. 울거울 오랜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기억하며, 유자를 활용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ections for [기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 특별매각조건
1. 농지은행 농지취득자격을 제공하여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